

報 道 資 料

2023. 12. 18.(월)



담당부서	도시재생경관과	담당자	주민희	연락처	560-3192
------	---------	-----	-----	-----	----------

인천시 서구, 국토부 300억 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 -2023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 인천 유일-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가좌 회복의 숲, 환경회복 실증도시’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좌1동 원도심 지역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주요 거점 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을 정비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9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공모 신청 후 10월 광역 평가 및 11월 중앙 발표평가를 거쳤고,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49곳 중 사업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인천 서구를 비롯해 전국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을 최종 선정했다.

국토부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인천에서는 서구가 유일하며,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국비 150억원, 시비와 구비 각각 75억원) 총 3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 ‘가좌 회복의 숲, 환경회복 실증도시’는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환경회복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 생태네트워크 회복 및 친환경 실증도시 조성을 위해 ▲관계의 회복 ▲단절의 회복 ▲환경의 회복을 3대 목표로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참여했다.

또한 △회복의 숲 허브 △회복의 숲 길 △회복의 숲 관계망 구축 등 3개

서구강소특구사업단 등 4개 기관과 업무협력(MOU)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된 기존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가좌동 145-43) 및 경로당(가좌동 142-31) 부지를 활용하여 4층 규모의 거점시설 2개소 신축과 대상지 내 보행친화적 생태가로 조성 및 녹지축 형성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강범석 서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민·관·산·학이 협력, 소통하여 새로운 성공 모델로 최선의 도시재생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지자체 사업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및 부처 연계사업으로 가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도 추진한다.